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916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이호대, 김경우, 채인묵,
강동길, 정재웅, 이승미,
이병도, 이준형, 봉양순,
권수정, 임만균, 신정호,
장인홍(13명)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서울시 양천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 주민들은 주변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잦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청력 저하는 물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늘어나 더 이상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실정임

- 하지만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은 매년 지속적으로 국제선 증편을 추진해 왔고 이는, 수십만 주민들의 피해를 무시하고 한국공항 공사와 이해관계 업체들의 수익 증대만을 바라보는 행위임
- 이에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시 양천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 주민들은 주변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잦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청력 저하는 물론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늘어나 더 이상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은 지속적인 증편을 하였고 특히 2006년 6월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하면서 연간 운항편수와 이용객은 2005년 94,787편, 13백만명에서 2019년 140,422편 25백만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개항으로 국제선이 일괄 이관하였지만 2003년 다시 도쿄 하네다 공항 국제선을 재취항 하였고 2019년 현재 20,301편이 운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는 지속적으로 국제선 증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쌓여만 가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놓은 해결책은 주민들이 느끼지도 못할 만큼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속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과 민원을 늘어만 가고 있다.

이제는 항공기 증편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야 할 때이다. 그것이 진정 국민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이해관계

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것 인지를 묻고 또 묻고 이제는 대답을 들어야 할 때다.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뿐만 아닌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해당지역의 문제로 국한되거나 지역이기주의로 치부되지 않도록 소음피해지역의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각각의 외침이 아닌 하나의 목소리로 주장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를 살피고 정부와 한국 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여러 지역의 광역의원들과 힘을 함께 할 수 있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하여 한 목소리로 공동대응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